

# 慈航問答記

이 성 호 옮김

財團法人 國際道德協會 一貫道

자항문답기(慈航問答記)

미륵고불께서 영산회상에서 만선회의를 열으심에 모든 불조(佛祖)와 신선이 다 모인지라 삼기말겁(三期浩劫)이 임박하여 중생이 고택중(苦海中)에 빠졌으니 깊이 슬프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미륵고불께서 여러신선을 데리시고 상제(上帝)께서 자비로서 널리 대도(大道)를 내리사 세상사람을 구원(救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애원(哀願)하였도다. 자비하신 성지(聖旨)로 은중(恩准)하심을 받자와 곧 미륵고불께 칙령(勅令)하사 범진(凡塵)에 임하여 세상을 건지실제 몸이 화(化)하여 뱃사공이 되어 매일연도(每日沿途)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로 “배가 왔어요. 배가 왔어요” 하고 외치고 있으나 배는 없는지라 여러날을 외치나 와서 묻는이가 없더니 하루는 한 여객(旅客)이 와서 물어가로되 무슨배이뇨?

답(答) 큰 법항(法航)이로다.

문(問) 어찌하여 법항(法航)이라 이르는고?

답(答) 상제(上帝)의 명령을 받들어 중생을 건져 집으로 돌아가는 고(故)로 법항이라 이르도다.

문(問) 이 법항(法航)은 어느곳에 있는가?

답(答) 열해광란중(藥海狂瀾中)에 있노라.

문(問) 이 법항(法航)은 얼마나 큰가?

답(答) 능히 구십육억인(九十六億人)을 수용(收容)할만하노라.

문(問) 어느때에 떠나는고?

답(答) 인원수(人員數)가 다 차면 떠나노라.

문(問) 그러면 다 찼는가?

답(答) 다 차지 못하였노라 떠나기는 떠나야하겠는데 아직 연분있는이가 다 오르지 못하여서.

문(問) 또 다음 배가 있으면 나는 다음 배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찌할꼬?

답(答) 다만 이 배 한척(隻) 뿐인데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 부르노라.

문(問) 이 배는 어디로 가는가?

답(答) 우리의 이배는 이천(理天)으로 가노라.

문(問) 어디를 이천(理天)이라 이르시고?

답(答) 세계(世界)가 비록 삼십삼천(三十三天)으로 나누어 있으나 기실(其實)은 이천(理天), 기천(氣天), 상천(象天) 세 가지에 불과하니 우리의 거(居)하는데가 상천(象天)이라 임금 혹은 대통령이 주(主)가 되어 유형(有形)이라 무너지기가 속(速)하고 선불이 거(居)하는데가 기천(氣天)이니 옥황(玉皇)이 주(主)가 되어 무형(無形)이라 무너지기가 더디고 천선(天仙)과 원불(原佛)이 거(居)하는데가 이천(理天)이니 영구(永久)히 무너지기가 없으며 무황상제(無皇上帝)께서 주재(主宰)가 되시어 진실로 하늘이 있기 전에도 이 이체(理體)는 있었고 하늘이 없어진 뒤에도 이 이체(理體)는 있는 고로 이천(理天)이라 이르나니라.

문(問) 무엇하러 이천에 올라가시고?

답(答) 사람이 이천에서 왔으니 이천에 가는 것은 곧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누구든지 집에 가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이 내의 법선에 올라야만 비로서 노모님의 얼굴을 뵈옵지니라.

문(問) 선생의 배는 어찌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답(答) 이 법선(法船)은 원래가 형상이 없는 것이요 비유하여 이르는 말에 불과하니 그대는 생각하여보라 사람이 세상에 있어 취생몽사(醉生夢死)하여 사생육도로 윤회하나니 모든 인연을 만나고 모든 과보를 받아 세상물결을 따라 끝없는 고통이 천태만상(千態萬狀)이며, 해탈 할 길이 없으니 고해(苦海)가 아니고 무엇인가 수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여 세계를 헛것으로 보고 부귀(富貴)를 물거품과 그림자로 보며 처자(妻子)를 정가애쇄(情枷愛鎖)로 보고 사업을 이쇄명강(利鎖名韉)으로 보아 일제히 타파(打破)하고 번롱(樊籠)을 뛰여 남에 신심(身心)이 청량(淸涼)하여 소요자재(逍遙自在)하고 불생불명하며 무가무애(無加無礙) 하나니 이것이 법선(法船)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問) 세상 사람이 다 고행에 빠져 있는가?

답(答) 다 고행에 빠져있느니라!

문(問) 그러면 부귀인(富貴人)의 집은 고루거각(高樓巨閣)에 보배(寶貝)와 구슬이 가득하고 노비(奴婢)를 부리고 주육(酒肉)을 먹고 금수(錦繡)를 입으며 성색(聲色)과 화리(貨利)에 만사를 마음대로하여 여름에는 서늘하고

저울에는 따듯하는 고로 고시(古時)에 이르러 수지해외신선부(須知海外神仙府)인데 진시인간부귀가(盡是人間富貴家)라 모름직이 해외에 신선부(神仙部)를 알고 저할진데 다 이 인간에 부귀한 집이라 하였으니 부귀인(富貴人)의 생활은 신선과 매일반(每一般)이라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영화스러운 것인가 어찌 고해(苦海)라고 하리요?

답(答) 그러치만 다 이 고해(苦海)이니 사람이 세상에 있음에 다 만족함을 알지 못하여 얻으면 잃을가 근심하고 잃으면 얻을려고 근심하여 일시(一時)라도 청한(淸閒)함을 얻지 못하여 탐진치애(貪嗔痴愛)와 이욕(利慾)이 마음에 젖어서 번뇌망상(煩惱妄想)이 두루두루 이름에 누에와 같이 스스로 자기몸을 얹어서 죽음에 이르러야 바야흐로 그치게 되어 한갓 죄만 짓다가 맨손과 빈주먹으로 열경대(孽鏡臺) 앞에 가면 그제야 후회한들 어찌하리요 비록 생전(前生)에 전주(全州)에 갑부(甲富)이며 지위가 극품(極品)에 이르러도 매일 먹는 것이 밥 세그릇에 지나지 못하고 밤에 자는 것이 팔척(八尺)에 지나지 못하거늘 빈천인(貧賤人)에 비교하면 얼마나 낭비가 많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죄업(罪業)이 과중(過重)함에 원연(冤緣)이 풀리지 못하고 순환보복(循環報復)하는 이치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피하기 어렵다. 일기(一期)를 다 갚으면 이기(二期)가 또와서 권형경중(權衡輕重)의 법칙에 따라 태란습화(胎卵濕化)의 배정(配定)을 받게 되니 참 가증(可矜)하고 가련(可憐)하다.

한법 허탕을 치면 죄의 과실과 씨가 맺힐 따름? 당일 부귀(當日富貴)가 또 어데 있으랴 생각하면 빈천인(貧賤人)이 되어서는 얻지 못할 죄의 과실이라 또 부귀는 세세(世世)로 누리기 어려워서 금생(今生)의 부귀는 다 전생(前生)에 닦은 결과(結果)요, 금생(今生)에 또 닦으면 래생(來生)에 부귀가 또 오거니와 만일 금생에 부귀를 믿고 닦지 않으면 전생의 복력(福力)이 다 되고 금생에 지은 죄의 과실(果實)이 곧 이를 것이니 무엇을 일시(一時)의 부귀만 믿고 부러워 하는고?

사람이 상천(象天)에 있는 것이 락토(樂土)가 아니요 유형은 무너짐이 속하니 하늘과 땅이 이미 무너지면 사람이 어찌 부처 살것이며 몸이 부처 살곳이 없으면 부귀는하여 무엇하리요. 오직 이천(理天)은 성원히 무너지지 않고 만고에 빛나나니 극락이라 하는데가 이곳이라 그러나 거기 가기가 어려우니 이때에 천도(天道)를 만나지 못하면 거기 갈 가망(可望)이 없는지라 능히 이천(理天)에 돌아가면 문득 만고(萬古)에 장생(長生)하려니와 인간에 부귀는 석화(石火)와 포영(泡影)같으니 어찌 이천(理天)에 비교하여 말하리요

문(問) 어찌 상천(象天)이 무너짐을 하는고?

답(答) 이치(理致)로 미루어 보면 오늘로 가히 작일(昨日)을 알것이요 금년(今年)으로 가히 명년(明年)을 알것이니 크고 작은 것이 다 한 이체(理體)라 이것으로 추산(推算)하면 이 일원회(一元會)로 가히 전일원회(前一元會)와 후일원회(後一元會)를 추산(推算)함에 자연 약합부절(若合符節)하여 일초일각(一秒一刻)도 틀림이 없다. 대개 무(無)로부터 유(有)에 들어감을 추산(推算)하여 개천(開天)을 알고 개천(開天)으로부터 일원회(一元會)를 돌아 혼돈(混沌)에 이르기 까지 추산(推算)하면 가히 상일원회(上一元會)가 이 일원회(一元會)와 다름이 없는 것을 볼수 있나니라.

문(問) 천지가 이미 무너지면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답(答) 사람은 이천(理天)으로 돌아간다. 선천노모(先天老母)께서 법선(法船)으로 건져 이천(理天)에 도착하시나니 법선(法船)이라함은 곧 도라 대개 천지간에 도(道)가 오직 홀로 높고 만물중에는 사람이 오직 귀함으로 사람과 천지를 삼재(三才)라 이르나니 이것이 곧 천지로 더불어 정족(鼎足)이 된다. 요컨대 능히 인격을 보전하지 못하면 사람이라 이르지 못하고 수도하는 자를 진인(眞人)이라 일러 능히 인격을 보전하여 참으로 사람됨이 부끄럽지 않고 능히 음양(陰陽)을 섭리(變理)하여 경천위지(經天緯地)하나니 이사람은 천지의 주인이라 요컨대 도(道)가 높고 덕(德)이 무거워서 성신(聖神)으로 크게 화한 자가 아니면 능히 이와 같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히 자중(自重)치 아니하며 가히 도(道)를 닦아 이천(理天)에 돌아가지 않을 까?

문(問) 현재 도문(道門)이 심히 많은데 모두다 법선(法船)인가?

답(答) 아니다 비록 다 법선(法船)은 아니나 대략(大略) 그러한 도문(道門)은 다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니 발작(發作)을 일으키며 참선(參禪)하는 것도 있고 경문(經文)을 외우며 불(佛)을 칭송(稱頌)하는 것도 있고 창(槍)을 휘두르며 칼을 희롱(戲弄)하는 것도 있고 법을 가져 주문(呪文)을 엮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명목(名目)이 다 사(邪)와 정(正) 두 갈래에 불과하니 속담에 이르되 두레박줄도 세가닥으로 드린다 하였다. 어떤 문이라도 다 들어갈수 있으나 정문을 찾으면 불조(佛祖)가 되고 정문을 못찾으면 공연히 번뇌(煩惱)만 하리니 다만 사람의 안력(眼力)과 복력(福力)에 달려 있다.

문(問) 선생의 법선(法船)이라하는 도(道)는 무슨 도(道)인고?

답(答) 일관도(一貫道)라 일으노라

문(問) 어찌하여 일관도(一貫道)라 일으는고?

답(答) 논어(論語)에 이르되 오도(吾道)는 일이관지(一以貫之)라 나의 도(道)는 하나로서 깨었다하였으니 공부자께서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열국(列國)에 주유(周游)하시면서 전하신 것이 곧 이 도(道)라.

문(問) 이 말은 내 참으로 잘 알지 못하겠노라. 선생의 도(道)가 공부자께서 전하시든 도(道)라면 어찌하여 성문(聖門)에 높은 제자로서 대현지위에 오르고 또 언어에 초월한 자공(子貢)도 오히려 말하기를 부자(夫子)의 문장은 가히 얻어 들으려이와 부자(夫子)의 말씀하시는 성(性)과 천도(天道)는 가히 얻어 듣지 못하였노라 하였는데 선생은 과연 어떤 성인으로서 능히 천도(天道)를 얻어 들었으며 선생이 자공(子貢)보다도 우월(優越)하다고 자처(自處)하는가 또 공자는 고금문장(古今文章)의 조종(祖宗)이요 역대 제왕의 사표(師表)이시니 공자께서 일관(一貫)을 전하였거늘 선생도 또한 일관(一貫)을 전한다면 선생은 제이문선왕(第二文宣王)이 된다는 말인가? 하물며 맹자까지 전하여 도(道)가 이미 전승자(傳承者)를 잃었다는데 선생이 누구에게 도통(道統)을 얻었는고? 선생의 말이 참으로 내귀에 들어오지 않는도다.

답(答) 그대가 나를 조롱(嘲弄)함이 실로 괴이(怪異)치 않다 그대가 내몸 보기를 그다지 하급(下級)으로 보는가 내 그대를 타락자(墮落者)라고 부르노니 그대는 잠을 깨라 그대의 말은 다 자포자기(自暴自棄)이며 사람을 무시하고 내몸을 경멸(輕蔑)하는 말이니 참으로 가련도다 그대가 사서(四書)를 잘 안다하니 내 사서(四書)에 있는 것으로 말하리라 사서상(四書上)에 명백하게도 사람이 다 가히 요순(堯舜)이 된다하였으니 요순(堯舜)도 오히려 될 수 있거든 하물며 그아래 되는 자이라 또가로되 순(舜)은 어떤사람이며 우(禹)는 어떤사람이뇨, 그도 장부요 나도 장부이니 하면 다 이와같다 하였다. 성현(聖賢)의 머리위에 성현(聖賢)이라고 표시한 것이 없고 하늘이 한사람의 것이 아니니 그대가 어찌 나의 성현(聖賢) 아님을 알며 그대의 성현(聖賢) 못됨을 알리요, 그대의 말이 맹자에 와서 도통(道統)이 실전(失傳)하였다하니 나는 과연 어떤사람의 도(道)를 얻은 것일까 대략(大略) 이 도는 내가 창작(創作)한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성성(聖聖)이 일맥(一脈)으로 상전(相傳)한 것이라 잘 참고하여보면 증거(證據)가 있어 계통(系統)이 소연(昭然)하리니 그대가 잘알지 못하거든 청컨대 평심정기(平心靜氣)하여 편안히 앉아 자세히 들으라 내가 일체의 증거를 말하리라 억지의 말로 이체(理體)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요.

먼저 진전(眞傳)을 말하리와 대범도(大凡道)를 강론함에 십육자 심전(十六字心傳)이 있다. 곧 인심은 유위(惟危)하고 도심(道心)은 유미(惟微)하니 유정유일(惟精惟一)이라사 윤집궐중(允執厥中)이라는 이 사구(四句)는 중천(中天)에 높이 뜬 일월과 같이 명백하거늘 그대가 이미 사회의 명사(名士)요, 유림(儒林)의 석학(碩學)으로서 도리어 알지 못함은 본래 심전(心傳)이 서책상(書冊上)에 있지 않고 반드시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진전(眞傳)을 얻어야 바야흐로 알게 되는도다. 그러므로 일으키 참 문장은 서책상(書冊上)에 있지 않으니 책장을 따라 글귀를 찾는 것도 역시 부질 없는 일이라 하였다.

단경(丹經)에 일으키를 만일 지상(紙上)에서 불법을 찾으라면 붓끝으로 동정호(洞庭湖)를 찍어 말려도 불가능한 일이라 하였으니 여약지상심불법(如若紙上尋佛法)이면 필첨잠건동정호(筆尖蘸乾洞庭湖)라 그러므로 진전(眞傳)을 얻지 않고는 개인의 적은 지혜(智慧)로 어찌 무상묘법(無上妙法)을 깨다르리요, 오직 하나인 진전(眞詮)은 만고에 들어 없는 것이니 이를 돌이켜 보건대 능히 심법(心法)을 강하는 자가 진전(眞詮)이 아니고 무엇이랴 일반 세상 사람은 대부분 우미(愚迷)한 사람이라 우미(愚迷)한 사람의 공통한 결점(缺點)은 육안(肉眼)으로 보는 것만 옳다고 고집하여 이해성이 없으므로 남의 권하는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나니 이런 사람은 도(道)로 더붙어 인연(因緣)이 없는지라 족히 의논 할 것이 없고 또한 도(道)라는 것이 높아서 믿기 어려움이 하늘에 올음과 같으니 신선은 선골(仙骨)이 있고 불(佛)은 불연(佛緣)이 있거늘 우리같은 사람이야 어찌 그 연분이 있으리요하여 자포자기(自暴自棄) 하면서 도(道)에 떠남이 날로 멀어 지나니 이런 사람은 심히 가련하다.

또는 근래에 도문(道門)이 허다히 생겨 혹세무민(惑世誣民)이 가장 심하여 세상에 진도(眞道)가 없고, 나홀로 만이 옳다고 주장하여 말로 서로 이길려는 것이 다 무리한 억설(抑說)이요. 다만 종전선불(從前仙佛)이 유전(留傳)한바 천기비(天機碑)의 무봉쇄(無縫鎖) 동명역추배도(東明曆推背圖) 황정경(黃庭經) 등에 상세한 증거가 있어 이 도(道)가 진도진전(眞道眞傳)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성현이 되는 문로(門路)이며 불조(佛祖)가 되는 계제(階梯)라 연분있는 선비와 지혜있는 사람은 한 번이 도(道)를 들음에 곧 마음을 돌려 득도(得道)한 후에는 다시 만마(萬魔)가 오더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나니 어찌 우연(偶然)한 일리요.

문(問) 선생의 말을 들으니 진전(眞傳)을 얻었다고 생각하노라.

답(答) 자못 하나 들을 깨달을 진저

문(問) 무엇을 하나 둘이라 하는고?

답(答) 윤집궐중(允執厥中)이라는 중(中)자는 곧이 하나와 둘이니 이 중(中)자는 일관(一貫)의 일(一)이요, 중(中)자는 고문(古文)에 두 개의 일(一)자라 하늘이 일(一)을 얻음에 맑고 땅이 일(一)을 얻음에 편안하고 사람이 일(一)을 얻음에 성(聖)이된다. 이 일(一)자는 성성(聖聖)이 상전(相傳)하는 심법(心法)이니 그대가 이 일(一)자를 알라면 가히 성심(誠心)으로도(道)를 구하라 내 능히 그대에게 이 일(一)자의 내력(來歷)을 말하여 주리라.

문(問) 참으로 좋은 도(道)이라면 구도(求道)한 뒤에 자연 마음을 급혀 전진(前進)하리니 선생이 먼저 설명한 뒤에 내 구도(求道)함이 심히 좋지 않겠는가?

답(答) 그대 괴이(怪異)하게 알지 말라 구도(求道)함은 원래 이 성심을 보는 것이니 현하사정(現下邪正)이 병립(竝立)된 이때 사람의 불연(佛緣)을 증험하고 사람의 지혜를 보아 진가(眞假)를 알아보거늘 만일 먼저 설명하면 어찌 써 진가(眞假)를 분간하리요 또한 이심전심(以心傳心)하는 심법(心法)은 고성(古聖)도 오히려 사람에게 루설(漏洩)치 아니한 고로 도(道)가 그때가 아니면 내리지 않고 그사람이 아니면 전(傳)하지 아니하였다. 현하(現下) 비록 크게 보도(普渡)를 열었다하나 모름직이 성심으로 구도(求道)한 뒤에 진실로 고험(考驗)해야 바야흐로 능히 전수(傳授)하나니 그대가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경솔히 루설(漏洩)하리요 과히 책망(責望)하지 말기를 마라노라.

문(問) 일관도(一貫道)가 성성상전(聖聖相傳)하는 도통(道統)이라면 그 발원(發源)이 어느때에 시작 되었는가?

답(答) 이것은 말하기 대단히 어렵다. 천지개벽(天地開闢)이래로 혼돈(混沌)에 이르기 까지 일대원회(一大元會)가 되나니 합계(合計)가 십이만구천 육백년이라 나누어 십이소원회(十二小元會)가 되니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슬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요. 일회(一會)가 일만공팔백년이니 전육회(前六會)는 무(無)로부터 유(有)에 들어가고 후 육회(六會)는 유(有)로부터 무(無)에 돌아간다. 일년의 사시(四時)와 같고 일일(一日)의 주야(晝夜)와 같으니 일주야(一晝夜)로 보면 육시간(六時間)은 사람이 있고 육시간(六時間)은 사람이 없으며 사시(四時)로 보면 또한 봄에는 날고 여름에는 기르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감추는 고로 하늘이 자회(子會)에 열리고 땅이 축회(丑會)에 열리고 사람이 인회(寅會)에 날아서 인회(寅會)는 이 춘생



발동기(春生發動期)요 추수(秋收)할때가 되면 천도(天道)가 하강(下降)하여 널리 원생(原生)을 거두어 이천(理天)으로 돌아간다. 첫째로는 하늘이 명령하신바요, 둘째로는 음양이기(陰陽二氣)가 순환(循環)하는 결과라, 그러나 이는 천기소관(天機所關)이니 이 이상 더 듣기를 원치말라 범부와 속자(俗子)로도 망령되히 천기를 루설(漏洩)않거늘 하물며 선분이 어찌 구태여 명목(名目)을 세워 흑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으리요. 그러나 도(道)는 이 천도(天道)이니 그대는 반드시 의심치 말라.

문(問) 천지개벽(天地開闢)은 다만 이 전설(傳說)이니 누가 보았으며 선생의 말은 다 빈말이요 증거(證據)가 없지 않은가?

답(答) 진실로 본 사람이 없으나 이미 하늘이 자회(子會)에 열렸다하니 가히 자회이전(子會以前)에는 하늘이 없음을 알것이요 땅이 축회(丑會)에 열렸다하니 가히 축회이전(丑會以前)에는 땅이 없었다는 것을 알것이며 인회(寅會)에 사람이 낳았다하니 인회이전(寅會以前)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가히 알지라 이미 사람이 없었으니 또 누가 보았으리요. 비록 본 사람은 없으나 일찍이 사람의 말을 들은 즉, 인회(寅會)때의 사람은 사람과 축생(畜生)이 분간이 없어서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며 길들어 살고 구멍에 처하여 비록 있으나 없는 것과 같았다.

왜 그런고하면 지식이 없는 연고라 상제께서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가 불완전하여 세계가 형성되지 못함을 보시고 불자(佛子)를 보내여 서천(西天)으로 쫓아 동토(東土)에 강생(降生)함에 매일색신(每一色身)에 일영성(一靈性)을 부쳤으니 이름하여 가로되 원래 불자라 하니라, 그후에 유소씨(有巢氏)가 궁실(宮室)을 짓고 수인씨(燧人氏)가 화식(火食)을 가르키고 후직씨(后稷氏)가 가색(稼穡)을 가르키고 신농씨(神農氏)가 의약(醫藥)을 가르키고 영윤씨(伶倫氏)가 음악(音樂)을 지음에 예악(禮樂)이 구비되어 세계가 크게 진보되었다. 이것이 무(無)로부터 유(有)에 들어오고 유(有)로부터 무(無)에 들어간 증거(證據)가 아닌가 능히 이같은 것은 다 영성의 소위이니 영성(靈性)은 무엇인가?

곧 천명(天命)의 성(性)이라 성(性)은 선천(先天)에 있음에 원형이정(元亨利貞)이 되나니 사람이 어머니 태중에서 반드시 열달을 지내어야 낳는 것은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생성(生成)하는 기운을 받음이라, 이 가운데 무궁(無窮)한 묘리(妙理)가 있으니 구도(求道)한 후 또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후천(後天)에서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되나니 이는 사람이 생겨난 내력(來歷)이라, 그러므로 세상사람이 나이가 비록 팔십이 넘어도 만일 질병(疾病)과 고통(苦痛)을 만나면. 다 어머니를 부르는 것은 선천(先天)에

계시는 노모(老母)를 부름이요, 색신(色身)을 낳은 부모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동일(同一)한 민족(民族)을 동포(同胞)라 부르나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에 불과하나 동포(同胞)라는 말이 한 아버지의 소생(所生)이라는 의미임을 특히 알지 못하고 있다. 만일 진실로 동포(同胞)임을 알진대 어찌 동포(同胞)끼리 서로 잔해(殘害)할 리(理)가 있으리요.

그들이 비록 구두(口頭)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실지(實地)는 묵묵(默默)한 가운데 스스로 동포(同胞)라는 말을 이러한 때에 발명하도록 지시하는 이가 있다. 이미 동포(同胞)가 있으면 동포(同胞)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을 것이니 사람이 서천으로 돌아가기를 상상함은 노모(老母)를 뵈올려고 하는 것이라, 나의 법선(法船)을 타지 않고는 후천(後天)에서 선천(先天)으로 돌아가기 만만(萬萬) 어려울 것이요 이천(理天)에 돌아가려면 법선(法船)이 아니고는 불가(不可)하니라.

**문(問) 도(道)가 심히 좋으며 일관도(一貫道)라 이름한 의미(意味)도 잘 알았거니와 어찌하여 그 전에는 없다가 이제야 있는고?**

답(答) 도(道)가 내린지 이미 오래지라 세계가 있기 전에도 이 도(道)는 있었고 세계가 없어져도 이 도(道)는 있었나니, 그런 고로 노군(老君)이 이르되 대도(大道)는 형상이 없으나 천지를 생육(生育)한다 하였다. 족히 천지의 태근원이 도(道)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거 이니라, 그러나 그전에는 단전독수(單傳獨授)로 내려온 고로 아는 자가 적었고 지금은 삼기호겁(三期浩劫)이 나리는 고로 크게 보도(普渡)를 열었으나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하므로 희귀(稀貴)하게 보며 도(道)가 강세(降世)한지 이미 오랜줄을 아지 못하고 있다.

지금와서 크게 보도(普渡)를 연 것은 근년(近年)에 인심이 예전과 같지 않고 세풍(世風)이 무너짐에 세상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하고神明(神明)에 예(禮)하지 않고 어른에게 조심하지 않고, 사우(師友)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간사하고 도적질하고 사특하고 음란하고 남을 해롭게하여 내몸을 이롭게하며 약한 고기를 강한자가 먹고 고독한 이를 속이고 과부를 능박(凌迫)하며 남의 단점을 말하고 나의 장점을 드러내며 아부(阿附)하고 회방(毀謗)하고 남을 하시(下視)하여 스스로 존제하며 망녕되이 높은 지위를 점령하고 남의 인격이 높은 것을 시기(猜忌)하여 부절없이 평론(評論)하고 자기는 뉘지않고 도리어 남을 웃는 일체하천(一切下賤)한 행동과 종종불량(種種不良)한 마음이 더러운 공기를 발생하여 상천에 촉범(觸犯)하는 고로

상제께서 진노하사 이에 호겁(浩劫)을 나리시니 근년래(近年來)에 도병수화(刀兵水火) 도적 온역황충(瘟疫蝗蟲) 수한(水旱) 기근등(飢饉等) 천재인재(天災人災)가 층층(層層)으로 이르고 빈번히 나타나 구제할 방침(方針)이 없는 고로 겁(劫)을 내린 것은 운(運)에 매인 것이 아니오, 실로 악인으로 인하여 자아낸 바이니라, 세풍(世風)이 비록 무너졌으나 구경(究竟)은 다 악인이 아니고 선근(善根)이 불후(不朽)한 자가 오히려 다수(多數)있는 고로 제천선불신성(諸天仙佛神聖)이 자비하사 공동회의를 열어 옥(玉)과 돌(石)이 같은지라, 이것을 참아보지 못하여 상제(上帝)께 자비로서 도(道)를 내리사 선량한 남녀를 건지시기를 애원(哀願)하였다. 다행히 상제(上帝)께서 은준(恩准)하사 바야흐로 이 도(道)를 내리셔 크게 보도(普渡)를 열어 선량한 남녀들로 하여금 각기 각로(覺路)에 올라 겁운(劫運)을 만회(挽回)하도록 하셨으니 이 도(道)는 순전히 충서(忠恕)로서 종지(宗旨)를 삼나니라 모름지기 도(道)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배플지 말라(己所不欲을 勿施於人)

강상윤리(綱常倫理)를 내가 먼저 실천(實踐)하고 삼기오계(三歸五戒)를 내가 먼저 준수하여 사심(私心)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하며 성경(誠敬)을 주(主)로하여 나혼자만이 알고 남은 모르는 암실옥루(暗室屋漏)에서도 조심하여 위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고 양심상유감(良心上遺憾)이 없게 하며 주의표간(主義標杆)을 굳게 세워 세상 사람을 감화(感化)시킬지니 세상사람이 다 능히 이와같이 하면 이것이 능히 겁운(劫運)을 만회(挽回)하는 것이 아니냐? 무릇 선근(善根)이 부패(腐敗)하지 않은 사람은 한 번 이 도(道)를 들으면 뛰어나와 먼저하기를 다투어 전도(前導)가 되어 친척이 친척을 건지고 이웃이 이웃을 건지고 친구가 친구를 건져 한집이 어질면 한나라가 인(仁)에 흥기(興起)하고 한집이 예양(禮讓)이 있으면 한나라가 예양(禮讓)에 고취(鼓吹)하여 점차로 교화가 행하고 풍속이 아름다워 전지구(全地球)에 보급하면 장차 밤에 문을 닫지 않고 길에 유실된 것을 줍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고 물건이 풍부하며 오일만에 바람불고 십일만에 비가오며 보리이삭이 두 개씩 나오고 기린이 들에 놀고 봉황이 문앞에 와서 태평행복(太平幸福)을 노래할지니 그 얼마나 즐거우며 이것이 대동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대는 의심치 말고 주의(主義)를 견정(堅定)하여 실심(實心)으로 구도(求道)하면 구도(求道)한 뒤에 허다한 강훈(降訓)이 있으니 한 번 보면 가히 명백히 알지라, 손님이 곧 일어나 가기를 고하고 물러나 여사(旅舍)에 돌아와 반복(反復)하여 생각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에 한노래를 지으니 그 노래에 이르대...

저 창창(蒼蒼)한 하늘 이 요요(擾擾)한 홍진(紅塵) 가운데 내가 있도다. 사람이 살고 죽고 쓰고 매운 것으로 초목과 같이 썩고 죄孽(罪孽)이 몸을 따르니 처자(妻子)도 생사를 대신 못하고 황금(黃金)도 윤회(輪廻)를 바꾸기 어렵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눈물이 못길을 적시는 도다. 진시황한무제는 천하의 영웅이로되 오히려 도(道)를 구하여 범진(凡塵) 벗기를 생각하였으니 가히 삼계(三界)안에 오직 도(道)가 홀로 높음을 알지라. 내 만권시서(萬卷時書)를 읽었으나 사람밖에 사람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니. 오늘에 천행(天幸)으로 이런 선생을 만나니 이른바 쇠로 만든신이 다 떨어지도록 찾아도 찾을 곳이 없다가 오늘 홀연히 찾아 문(門)에 올랐도다

만일 경솔(輕率)히 알아 헛되이 지나버리면 참으로 이 세상에 큰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제부터 하늘을 찌를 듯한 지향(志向)을 세워 정하여 언덕위에 꿇어 앉아 진인(真人)을 구하리라, 한 번 뛰어 하늘 그물을 타파(打破)하고 몸을 소스라쳐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벗어나가리라 즉시 우리 조상의 덕이 후(厚)하고 나의 근거(根基)가 깊음을 알지로다. 생각컨대 천고(千古)에 기이(奇異)하게 만났으니 참으로 나로하여금 고무(鼓舞)하여 기뻐하는 도다. 말하고자 하니 대우주와 같이 크고도 깊고 눈을 부릅뜨니 대지(大地)가 장춘(長春)이로다. 두 세번 노래하니 기쁨이 극하여 자지 못하고 드디어 앉아서 아침을 기다려 하늘이 조금 밝음에 곧 목욕(沐浴)하고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여 구도(求道)하러 가니라.

답파철혜무역처(踏破鐵鞋無覓處)

금일홀연조상문(今日忽然找上門)

약요경외공방과(若要輕外空放過)

진내세상대우인(眞乃世上大愚人)

종금입정충천지(從今立定冲天志)

궤재안변구진인(跪在岸邊求真人)

일퇴타파천라망(一槌打破天羅網)

번신도출육도륜(翻身跳出六道輪)

壬寅年 十一月 十九日

어(於) 濟州市 理世法壇 謹刊

=慈航問答記終=

이 책의 저작권은 (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